

삼화실-대축 구간

코스 지도

눈부신 지리산이 섬진강을 만나 거니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삼화실의 유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생태/민속자료
2	동촌마을	삼화실의 유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생태/민속자료
3	이정마을	이정마을의 유래와 정자나무	민속자료
4	이정마을 앞	밥봉과 물봉 이야기	민속자료
5	버디재	버디재를 넘나들던 소동이야기	생태/민속자료
6	서당마을 이팝나무 당산	마을유래와 청계천 가로수가 된 이팝나무의 자손	생태
7	괴목마을	재 넘어 또 재를 넘는 마을	민속자료
8	신촌마을 다랑이논	기우제 지내던 다랑이논 마을 이야기	생태/민속자료
9	먹점재	구재봉과 정안장군 이야기	민속자료
10	먹점마을	먹점마을 유래 / 매화꽃 피는 마을	생태/민속자료
11	미동마을 위	족제비 등 포유류의 생태 / 강과 포유류의 삶	생태
12	아미산길	아미산길 섬진강 풍경	생태/ 민속자료
13	문암송	시인목격과 소나무 이야기	생태/민속자료
14	대축마을	대축마을유래와 대봉감 시배지	생태/민속자료

1. 구간소개

날짜는 이제 막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데, 차창으로 들이치는 햇살이 제법 따갑다.

초로의 어르신 몇 분만이 초여름 햇볕과 함께 찾아든 졸음을 꾸벅꾸벅 즐기고 계실 뿐, 하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한산하다.

하동, 어린 시절이 추억이 살아있는 곳.

그곳을 떠난 지도 벌써 십 년이 훌쩍 넘었다. 보따리를 이고 진 사람들을 꽉 채우고 시골길을 덜렁이던 시외버스는 이제 세련된 고속버스가 되어 쪽 뺨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길만큼이나 그곳도 많이 달라졌겠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몰려다녔던 친구들도 이젠 떠나버리고 없겠지.

고향을 향하던 설레임이 가시고 그 자리에 괜한 낯설음이 찾아든다.

추억은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일까, 이 길을 나선 발걸음에 슬쩍 후회가 찾아드는 순간, 차창 가득 시원한 푸른빛이 들어온다.

아, 섬진강이다. 어린 날, 사소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할머니처럼 안아주던 강. 그 강이 그 시절 그대로 흐르고 있다.

그래, 모든게 그대로일 것이다.

친구들과 뛰놀던 산길, 고갯길도, 그 길에 지천으로 핀 밤꽃, 배꽃, 매화꽃들도, 할머니가 담아주시던 매실 장아찌의 새콤한 맛도.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인다.

하동을 향하는 마음이 다시금 두근거린다.

2. 동촌마을

동촌마을 어귀에 못 보던 조탑이 서 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드는 탑. 이곳의 조탑은 지리산 둘레길을 연 기념으로 둘레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가져 온 돌들로 만들어진 탑이다. 강원도, 제주도에 멀리 필리핀까지, 자신의 고향의 이름을 아로새긴 돌맹이들이 이곳에 새 등지를 틀고 있다.

모두들 떠나버린 산골마을에 사람 대신 돌들이 찾아온 것이다.

동촌 마을은 일곱 마을을 품고 있는 삼화실 골짜기의 대문이다. 봄이면 흐드러진 배꽃, 매화꽃이 만들어 내는 새하얀 배경 사이로 분홍빛 복사꽃 발그레하게 얼굴을 내미는 곳. 세 가지 봄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삼화실이란 고운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오랜 시간, 골짜기 사이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까, 이곳에 삼화실이란 이름이 붙은 사연은 이곳을 지났을 사람들의 발자국 수만큼이나 다채롭다. 신라시대, 동촌마을 들 건너편에 자리잡은 마을 앞 들에 흉년이 들어 황무지로 변한 때가 있었다. 곡식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곳에서 말을 먹이기 시작했고 말들이 행여 굶지 않도록 세 개의 먹이통을 심어두었다. 그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 들판은 ‘통삼배기들’이라 불렸고 통삼배기의 한자식 표현인 ‘삼하’가 바뀌어서 지금의 삼화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고개 너머 악양 땅에선 이 고개를 ‘사마치’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도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악양의 한 마을에 대장군의 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운명이 역적의 운 또한 겸하고 있어 부모의 마음엔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다. 하루는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벽을 자유자재로 타 올라 기어다니고 겨드랑이에 은빛 날개가 돋아 있었다.

이에 부모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가버렸다.

한참이 흐른 후 방안이 잠잠해지자 문을 열로 들어간 부모들은 깜짝 놀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아이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부모를 보자마자 갑자기 일어나더니 피를 흘리며 날개돋힌 말이 되어 이 고개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고개를 ‘사마치’ 즉, ‘죽은말의 고개’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악양 사람들은 ‘사마치’의 발음이 변해 삼화실이 된 것이라 말한다.

꽃이 만발한 골짜기에서 죽은 아이가 말이 되어 날아간 골짜기까지, 삼화실이란 이름은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발자국만큼이나 많은 속뜻을 품고 있다.

도로가 미처 뚫리지 않았던 시절, 험하기로 유명한 하동의 고갯길을 험뻑거리며 넘던 사람들,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잠시라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으리라.

삼화실, 그 이름 속에 작은 휴식의 시간이 보인다.

3. 이정마을

예로부터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 이라 이름 붙은 이정마을.

마을을 둘러보니, 동산을 뽐양게 뒤덮었던 봄날의 마을 풍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활짝 열어놓은 대문처럼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선 두 그루의 나무 뒤로, 다소곳이 물러앉은 아담한 정자가 바쁜 발걸음을 붙잡는다. 삼화실 골짜기 한복판에 자리잡은 덕에 이곳 마을 삼거리는 오며 가며 마주친 이웃 마을 사람들이 회포를 풀고 가는 곳이었다고 한다. 두 그루의 나무가 드리우는 안락한 그늘 아래서 두런두런 퍼져나갔을 옛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마을을 지켜왔다는 정자나무, 이 나무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선사한 것은 그들만은 아니었다. 원래는 네 그루였다는 정자나무는, 50년대 전쟁 이후 피해를 입은 마을의 대들보가 되어주고, 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 낡은 마을회관에 새 서까래를 얹어주면서 지금은 두 그루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정마을에 서게 된 것은 나무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덕분이었다.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낸 ‘공또경’ 선생이었다. 나무가 서 있는 이 땅이 당시엔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넓은 공터였다. 그런데 권세 높은 마을 지주가 이 터를 논으로 만들어 혼자서 취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공또경 선생은 궁리 끝에 마을 뒤 야산에서 손가락 굵기의 느티나무와 팽나무, 버드나무를 파다가 옮겨 심었다.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면 마을 주민 모두의 땅이 될 것임을 13살의 어린나이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를 심었던 어린 소년은 이제 세월과 함께 가버리고 없지만, 가느다란 나무들은 훌쩍 커서 든든한 지주가 되어 이정마을의 하루하루를 지키고 있다. 자신의 몸에서 피고 지는 꽃을 품듯, 나무는 이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고 있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나무의 너른 품을 올려다보는데, 지나던 어르신이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을 건네신다.

“봄철에 이 느티나무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여러 번 나누어 피면 가뭄이 든다 카지요. 올해는 한 번에 활짝 폈으니, 풍년일끼라, 하모.”

나무를 쓰다듬는 어르신의 손길이 정답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나무의 포근한 눈길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하다.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정마을의 정자나무.

나무는 그저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뿐이지만, 이 나무에 담긴 마음은 은은한 향기가 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첫 마음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어떤 큰 움직임보다도 귀한 일일지도 모른다.

4. 이정마을 앞

이정마을 어귀, 잘 다져놓은 동그란 무덤 같은 언덕이 보인다.

일부러 다져도 저리 고운 둥근 곡선을 만들지는 못할 텐데, 자연은 참 신기한 재주가 있구나, 새삼 감탄하게 된다. 봉우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등산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메모장을 든 여자분이 다가온다. 하동에서 활동하는 생태해설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들고 있던 물통의 물을 시원스레 들이키고 나선 말을 잇는다.

“신기하죠? 저 봉우리,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거 밥봉이예요. 그릇에 담긴 밥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 밖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며 어머니가 담아놓은 소복한 쌀밥의 모습이다. 괜히 허기가 찾아들고 입안에 침이 고인다.

“옛날엔 이 이정마을 앞 냇물이 제법 큰 강이었다 그래요. 하루는 큰 홍수가 나서, 불어난 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왔는데요, 마을 아낙이 부엌에서 밥을 짓다 밖을 내다보니까 저기 오른쪽 삼화실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큰 흙더미가 마을 쪽으로 떠내려 오고 있더라요. 그래서, ‘저기 산이 떠내려 간다’ 하고 고향을 질렸더니 흙더미가 놀랐는지 여기 이 자리에 멈춰서버렸다고 해요. 그 후로 웬일인지 이정마을은 곡식이 참 잘돼서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봉우리를 밥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슬며시 웃음 짓다 문득, 안스러운 마음이 찾아든다. 끼니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먹기조차 어려웠던 시절, 저렇게 소복하게 둘러담은 밥을 원없이 먹고 싶은 마음에 저 봉우리에 ‘밥봉’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기원이 밥봉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하다.

“오른편에 보이는 봉우리는 ‘물봉’ 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저 봉우리 별명이 ‘불봉’ 이라는 거죠.”

물과 불이라, 어째서 이런 상극의 이름이 붙은 것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나를 보며 해설사는 말을 잇는다.

“예전에 매년 가을이면 저 봉우리에서 원인 모를 불이 자주 났대요. 그래서 원래는 불봉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불이 자주 나니 피해가 커서 마을 앞 냇물에서 물을 떠다가 불봉 정상에 부었더니 그 뒤로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물이 불을 이겨버린 까닭에 불봉도 물봉이란 새 이름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동촌마을 너머 한 절의 스님이 이 봉우리에 불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바위로 거북이 한 쌍을 만들어 아래 냇물에 있는 보 밑에다 묻으면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스님 말대로 거북이 한 쌍을 만들어 묻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정말 불이 안 났다고 해요. 근데 이 전설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게요,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 정말 그 자리에서 거북이 한 쌍이 나왔대요. 그 중 하나가 지금도 삼화초등학교에 보관돼 있어요.”

밥, 불, 물.

이정마을 봉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멋부리지 않은 이 이름들.

너무 흔해서 잊고 지냈던 단어들이 새삼 마음속에 꼭꼭 새겨진다.

5. 버디재

이제 도시 사람이 다 되어버린 모양이다. 어릴 적엔 뛰어서도 지났던 길인데 이젠 버디재의 얇은 오르막에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쁘다. 잠시 숨을 고르려 멈춰 서는데 길가 나무 곁에 중년의 어르신이 쪼그려 앉아계신다. 호기심에 어깨 너머로 보니 나무에 박아 둔 긴 빨대를 페트병에 담아 뭔가를 받아내고 계신다. 병 속엔 맑은 액체가 반 너머 들어차 있다. 아,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모으시는 구나. 어린 시절 마셔본 달달하고 시원한 고로쇠 물맛을 떠올려 보니, 타들어가던 목구멍의 갈증도 잦아드는 듯하다. 나도 모르게 입맛을 짹짹 다시고 있는데 어느새 나를 향해 돌아앉은 어르신이 말을 건네신다.

“버드재라는 게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았다 해서 버드재예요.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성냥공장에 성냥 재료를 하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다 벌채를 해갔고 갔대요. 성냥 만드는 재료가, 버드나무를 가지고 성냥개비도 만들고 성냥곽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때 버드나무를 갖다가 벌채를 해서 그 이후에 저게 인자, 지금은 버드나무가 없지요.”

버드나무가 사라져 버린 버디재가, 지나는 발길마저 뜰해진 이 길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삼화실 골짜기 사람들이 하동읍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곤 했다는 버디재. 그 옛날엔 지나는 길손뿐만 아니라 목동들이 몰고 올라온 소들로 북적였다는 게 어르신의 설명이다.

“고 고개 넘어가문, 서당마을 아랫마을이 원우예요. 원우, 상우, 또 인자 그런데, 소 우자를 쓰는게 원우에는 원님이 살던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또 원우, 소를 많이 키웠대요. 그래서 소 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우하고 상우. 상우는 또 윗 상잔데 상우는 큰 소, 어미소, 숫놈소 아주 큰 거, 대장소를 상우라 그러거든, 촌에 말로. 그래서 우리실이라 그러지. 소의 우리가 있었던 마을.”

버드재 아래에 있는 우계리란 이름은, 소를 키우고 축사가 많았던 우리실이란 마을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며 어르신이 덧붙이신다. 지나던 길목마다 유난히 소 우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았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지금껏 모른 채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이 길에서 알게 된다.

한때는 50채 정도의 집이 있었고 집마다 50마리 정도의 소를 키웠으니 초록의 배경 속으로 누런 빛깔들의 소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을 것이다.

한창 때의 목동들은 소를 먹이다 말고 이쪽저쪽 편을 갈라 잔디 위에서 씨름도 하면서 정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 소를 잃어버리면 밤새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혀두고 소를 찾아 나서기도 했었는데, 때론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가 다음 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느긋하게 풀을 뜯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연신 웃음이 가득하시다.

그 웃음 속에 그 옛날의 정취가 한껏 묻어난다. 다시 돌아앉아 고로쇠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의 등 뒤로 긴 소울음이 버디재를 훑고 지나간다.

6. 서당마을 이팝나무 당산 지점

구재봉의 줄기가 신촌마을을 거쳐 쪽 뺨어 내려오다 잠시 숨을 돌리는 곳, 이곳이 서당마을이다.

가파른 두 고갯길 사이, 쪽 뺨은 국도변에 자리잡은 마을 정자 앞에서 나도 함께 숨을 돌린다. 길 아래로 가지를 활짝 펼치고 선 나무가 웬지 익숙한 모습이다.

어디서 봤더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내 옆으로 경운기가 지나간다. 경운기에 올라 탄 어른신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 마디 던지신다.

“저거이 서울에 그 뿔이나 청계천 가로수 어미목이여. 저 이팝나무 씨를 받아서 우리 손으로 키운 묘목을 갖다 거쪽에 심었으께. 거기 가서 이팝나무 보거든랑 서당마을 후손인 줄 알아!”

스쳐가는 어른신의 미소에 대단한 긍지가 엿보인다. 아, 그래서 낮이 익었구나.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읽은 듯도 한 그 마을, 그 나무가 바로 여기 서당마을 저 이팝나무였구나.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이 나무가 서울의 한 복판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필경 300년이나 묵은 나무의 영험함 때문이리라. 마을 들판을 지키는 수호신인 이 나무는 기묘한 힘을 갖고 있는데, 나무의 아래쪽에 꽃이 많이 피면 비가 적게 내려 물길 아래에 자리잡은 들판에 홍수가 나지 않아 풍년이 들고, 위쪽에 많이 피면 물길 위쪽 들판에 비가 충분히 내려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팝나무는 원래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비가 적당히 와야 꽃을 활짝 피우는 식물이다. 그러니 이팝나무로 한 해의 농사를 점치는 데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나무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 남다른 특별함이 있다. 200년쯤, 흉년이 들어 잎이 하나도 피지 않아 사람들은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믿었는데, 다음 해에 거짓말처럼 꽃을 틔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서당마을의 그 누구 한 사람 이팝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하지만 이러한 영험함이 아니더라도 이팝나무를 바라보다 보면 절로 시선이 흐뭇해지는 데는 까닭이 따로 있다. 꽃피는 5월이면 나무 전체가 눈이라도 맞은 듯 하얀 꽃으로 뒤덮이는데, 꽃잎의 생김새가 가늘고 길어 마치 소담스레 담아놓은 쌀밥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을 다스리는 시설마저 부족하던 시절, 가뭄이 들어 타들어가는 논밭과 무심한 하늘만 번갈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서당마을 사람들에게 거대한 밥그릇처럼 하얗게 솟은 이팝나무는 소박한 희망이자 기원이었으리라. 임진년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나무에 옷과 밥이 달려 있어 이밥나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전하는 걸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나무가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팝나무가 주문을 건 덕분일까? 이 산골의 들판은 척박하지만 인간이 노력한 만큼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한다. 이렇듯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동지, 이곳이 바로 서당마을이다.

7. 괴목마을

하늘색과 주홍빛 슬레이트 지붕을 소박하게 이고 있는 집들이 웅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이 시야에 들어온다. '괴목마을'.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선 아름답리 느티나무의 소담스런 모습을 닮아서일까, 이 마을은 느티나무의 다른 이름인 '기목'에서 따온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자리잡은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싼 야트막한 봉우리들 사이에 비밀스레 들어앉은 이터에 반했으리라. 마을 앞으론 구재봉에서 흘러내린 실개천 너머로 선녀가 떨어뜨린 옥구슬처럼 고운 자태를 지닌 옥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마을 뒤론, 실이 소복하게 감긴 실꾸리를 닮은 실봉 사이로 선녀가 실을 잣는 고개인 물레재가 지나가니, 이 마을의 복이 실처럼 끊임없이 풀려갔다고 한다.

계다가 마을 앞 옥산의 옥산재는 마을 뒤 물레재로 실처럼 이어지는데, 이 고갯길은 삼화실과 우계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하동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 길목에 딱하니 자리잡은 괴목마을은, 그 옛날, 보따리와 지계를 이고 진 길손들로 꽤나 활기를 띄었으리라.

하지만 옛말에 길을 끼고 앉은 마을은 흥하는 만큼 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던가. 가뭄이 든 여름이면 물이 귀한 산골마을에선 기우제라도 지내어 하늘의 뜻만 기다려야 했다. 장작이라도 패서 장에 내다 팔아야 했지만, 손수레도 넘지 못하는 좁고 굽은 고갯길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다.

괴목마을 어르신들의 절룩이는 다리와 유난히 굽은 허리는 그런 고생스런 시간들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앞친데 덮친 격으로, 90년대, 마을 앞에 우계저수지가 생기면서 괴목마을의 살림 밑천이었던 들판이 모두 수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괴목마을은 이런 풍파에 주저앉지 않고 새로이 일어서고 있다.

볼만한 꽃도, 화려한 단풍도 없지만 단단하고 별레도 먹지 않으며 수명이 오래가는 느티나무를 닮은 덕분일까, 몇 년 사이 괴목마을은 귀농한 젊은 사람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괴목마을을 바라보는 내 앞으로 우연처럼 젊은 부부가 지나간다. 작업복 차림에 손을 꼭 잡은 부부는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넨다.

블루베리가 나는 여름에 꼭 다시 한 번 와보라는 말을 남기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 앞으로 괴목마을 느티나무가 다정스런 눈길로 그들을 굽어보며 서 있다.

8. 신촌마을 다랭이논

와아~ 산골짜기에서부터 부채처럼 펼쳐져 내려온 다랭이논에 입이 저절로 딱 벌어진다.

층층의 다랭이논이 만들어낸 우아한 삼각형, 그 한가운데에 신촌마을이 있다.

우계 골짜기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마을. 뒤로는 구재봉이 매서운 북풍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골짜기가 대문처럼 너르게 열려있는 이곳은 방안처럼 온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새로 터를 닦았는데 그렇게 생긴 마을이 새터말, 바로 신촌이다.

350여 년 전에 만들어져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에서 격전을 겪고, 한국전쟁 당시엔 물밀듯 들어온 피난민 들에 시달리고, 전쟁 직후엔 빨치산과 토벌대의 사이에서 고초를 겪은 신촌마을. 그러한 역사의 풍파를 거치면서도 이 척박한 땅을 길이길이 살만한 터전으로 일구어낸 것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독심과 몸매 밴 성실함 덕분이다.

마을 아래 우계 저수지가 생기기 전, 신촌마을 사람들은 보매기로 한해의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보매기는 흐르는 개천의 중간 중간에서 물을 막아 같은 높이의 논들에 물을 대는 것인데, 돌을 쌓아 물을 막고 모래와 진흙으로 꼼꼼히 사이를 채워야 논에 충분히 물을 대고 일 년 농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봄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흐르는 개천을 따라 줄을 서서 돌과 흙을 나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인간의 힘과 지혜를 보여주는 장관이었으리라. 덕분에 이 손바닥만한 땅들도 부지런히 이삭을 틔우는 가치로운 다랭이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촌이란 이름 덕분일까, 70년대 일어난 새마을 운동은 이곳 신촌마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 옛날 이 마을은 손수레도 다니지 못하는 비좁은 골목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너지도자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중장비도 없이 삽과 괭이만으로 피나는 고생 끝에 마을 안길을 넓혔고 덕분에 마을 어느 곳이든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 들과 들을 연결하는 농로를 뚫어 농기계가 들판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게 한 덕분에 조각땅이지만 꽤나 괜찮은 작황을 자랑하게 되었다. 당시의 열기가 남아서일까, 이곳 신촌마을 사람들의 끈끈한 단결력은 일대에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버스정류장에 앉아 지나치는 이방인에게 말을 건네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은근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도 당연한 듯 싶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마을의 징표와도 같은 '다랭이논'이 신촌마을 사람들에게겐 새마을 사업 이래 미완의 과제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저수지 아래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관리하기 쉬운 논들을 여전히 선망하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눈에는 한 땀 두 땀 손수 이어붙인 조각보 마냥 아기자기하기만 한 다랭이논이, 이곳 사람들에게겐 고단한 삶의 지표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자의 입장에선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다랭이논이 아쉽기만 하다.

구재봉에서 흘러내린 바람이 '다랭이논'에 층층이 파도를 일으키고 지나간다.

9. 먹점재

먹점마을에서 이어지는 고갯길을 지난다.

섬진강에서 뽕얇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겠다며 아침 일찍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가 야단맞았던 일, 겨울철 눈 덮인 악양들판이 흰 도화지 같아 허공에 대고 손가락 그림을 그렸던 일.

먹점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추억들이 피어오른다. 그럴 때면 언제나 밭에 걸리던 세뿔투구꽃, 은꿍의다리, 털과불나무, 개구릿대. 구재봉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나무 풀들의 이름은 시골뜨기 어린 아이의 귀에도 퍽이나 매혹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추억 하나. 나뭇가지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친구들과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몰려다니며 서로 자기가 정안장군의 후예라며 뽐냈던 일이다. 먹점재가 지나는 구재봉엔 고려 시대 무사였던 정안장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구재봉엔 장군의 집터가 있고 봉우리 남쪽 언덕엔 장군이 지은 절인 구자암터가 남아있다.

장군은 왜 이런 험한 산골에 자리를 잡은 것일까?

정안장군은 고려 말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이 장군의 처남이었다. 그 정도의 권세면 개성 땅에 아흔 아홉간 집을 짓고 살았을 법 한데 말이다. 그것은 아마 정안장군의 강직한 품성 때문이었을 게다. 가까운 친척이긴 했지만 최이의 독재정치를 싫어한 장군은 혼란한 중앙 정치판을 떠나 하동으로 낙향했다고 한다. 낙향을 한 만큼 정치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장군의 의지가 이곳에 터를 닦게 한 것을 아닐까?

이 고개 곁에는 정안장군의 동생 또한 살았는데 무사집안이었던 만큼 동생 또한 이름난 명궁이었다.

그가 타고 다니는 백마는 화살보다 빠른 것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장군이 자신의 백마와 내기를 했다고 한다. 말이 빠르냐, 화살이 빠르냐 하고 말이다. 장군은 자기 말에게 만약 화살보다 느리면 목을 베겠다고 말하고 난 뒤 활을 쏘아놓고 말을 타고 달렸다. 화살이 떨어졌을 법한 곳에 도달했는데 날아오는 화살이 보이지 않자 장군은 약속대로 애마의 목을 치고 말았다. 목을 치고 나자 그제야 화살이 떨어졌고, 장군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전설은 전국적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다.

경북 고령의 미송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 장군등의 일화도 이와 비슷하다.

먹점재에 앉아 잠시나마 친구들과 깔깔대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10. 먹점마을

둘레길은 마을을 들르지 않고 바로 먹점재와 미동고개로 이어지지만 걸음은 어느새 마을길을 달려가고 있다. 굽이굽이 좁은 포장도로를 따라 골짜기 깊숙히 들어앉은 고향 마을은 봄이면 매화꽃으로 별천지가 된다. 예로부터 매실로 유명한 고을이었지만 여태껏 관광객을 위한 번지르르한 관광지로 변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고맙다.

그리고 고맙고 반가운 또 하나의 존재. 할머니.

할머니는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버린 산골마을을 지키며 지금껏 매화나무를 가꾸고 계신다.

갓 심은 매화나무보다 키가 작았던 어린 시절, 조막손으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마을길을 걸을 때마다 할머니는 커서 매화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르시곤 했다. 겨울이 끝나기 전에 잎보다 먼저 피는 매화처럼 엄동설한 같은 매서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고고히 살라는 뜻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니 몇 개 남지 않은 이를 드러내며 할머니가 함박웃음을 지으신다.

“에구구, 내 강아지. 온다꼬 육봤재. 서울서 돈버느라 힘들재.”

오랜 만에 할머니 곁에 앉아 매실 꼭지를 따다. 부지런한 할머니가 벌써 설탕에 재어놓은 매실이 여러 통 줄을 서 있다. 이제 꼬박 100일 밤을 넘기면 새콤한 매실 장아찌와 시원한 매실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먹점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겐 매실은 밥이자 약이었다.

연한 녹색 빛깔에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한 청매, 향이 좋고 빛깔이 노란 황매, 청매를 찌서 말린 금매, 청매를 소금물에 절여 햇볕에 말린 백매, 청매의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려 검게 만든 오매. 갓은 매실로 만든 요리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장아찌, 잼, 정과에 간장, 식초까지. 특히, 매실주는 풍미가 좋은 술이기도 하지만 탈난 뱃속을 달래주는 약이기도 했다. 매실주 한 모금이 마시고 싶어 할머니 앞에서 체한 척 데굴데굴 구르는 연기까지 불사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슬며시 웃음이 난다.

3월의 꽃놀이가 끝나고 봄농사에 바쁜 동안 매실은 하루하루 소리없이 자라난다. 이윽고, 6월이 오면, 나무는 초록색 매실을 주렁주렁 달고서 농부의 손길을 재촉한다. 하얀 매화 한 송이가 매실을 하나씩 잉태하는 것이니, 추위도 가뭄도 피해서 꽃이 제때 피어야 풍성하고 실한 매실을 거둘 수 있다. 가지를 붙들고 한 알 두 알 따 내리는 농부의 정성이 더해져야만 그 해의 매실 농사가 완성된다.

따스한 춘풍이 불기도 전에 농부는 나무마다 거름을 주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한다. 수확철이 되면 따도 따도 줄지 않을 기세로 줄지어선 매실 나무 덕분에 농부의 손길은 실 틈이 없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매실 꼭지를 따내는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은 세월의 무게에 마디가 굽어지고 굽을 대로 굽어있다.

매실을 따다 말고 뒷동산으로 숨어버렸다가 새참이 오는 시간을 맞춰 슬그머니 나타나곤 했던 어린 시절의 철없던 행동이 새삼 죄송스러워 진다.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할머니 곁에 있겠노라고 약속을 하지만 다시 길을 떠나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금새 왔다 가버리는 손녀가 야속할 법도 할 터인데,

“인자 다 컸으께 술도 한 잔 하고 해야지.” 라며 손수 담근 매실주 한 병을 내미시는 할머니. 매화꽃 같은 할머니의 미소를 느끼며 돌아서는 길. 가방은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진다.

11. 미동마을 위

솔숲 사이 검디검은 흙을 밟으며 걷는다.

유난히 폭신한 흙길은 발을 딛을 때마다 연신 숨을 토하듯 부스스 먼지를 일어난다. 굽이굽이 고갯길을 걸어온 지친 발이 포근한 흙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한다. 이곳 하동 땅을 떠난 뒤로 이제껏 걸어온 도시의 길들은 모두 딱딱한 포장도로였다 사실이 새삼 상기된다. 호흡을 멈춘 아스팔트길. 걸으면 걸을 수록 발바닥의 통증과 참을 수 없는 지루함만 남는 길. 발자국 하나 남길 수 없는 그 길을 어째서 당연한 듯 걸어 다녔을까.

뒹구는 솔방울들 사이로 낫선 발자국이 보인다. 고라니일까,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 본다. 아, 발굽 대신 네 개의 발가락과 발톱의 흔적이 뚜렷한 것을 보니 너구리인가 보다. 산길이 곧 놀이터였던 어린 시절엔 이런 발자국만 보아도 무슨 동물이 남긴 흔적인지 금새 알아차렸는데, 이젠 가물가물하기만 하다.

대축에서 먹점마을로 이어지는 미동마을 위의 산길은 한적한 산길과 임도로 이어져 있어 사람의 발길이 뜸한 편이다. 마을 위를 흐르는 작은 계곡은 마을사람들의 식수원이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깊은 숲길이 아니어도 고라니, 너구리뿐만 아니라 살췍이,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배설물, 여기저기 찍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발자국들, 천적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새의 깃털들을 만날 수 있다.

멧돼지를 잡아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발자국을 추적하던 겁없던 시절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멧돼지가 몸을 비벼 밀동이 움푹 파인 배개목을 찾아내는데 그쳐 낙심해서 돌아오고 말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멧돼지를 정말 마주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 때의 기억이 떠올라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아무리 한산한 산길이라 해도,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날래고 조심성 많은 야생동물을 맞닥뜨릴 기회가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의 흔적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 몇 마리가 언제 어디로 향했는지, 천천히 산책을 한 건지 바빠 뛰어간 것인지 까지도 알 수 있다. 앞발과 뒷발 사이를 잇는 막을 이용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하늘다람쥐는 좀처럼 마주치기 힘든 동물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현미쌀처럼 다부진 배설물을 보면 하늘다람쥐가 오가는 길목을 찾아낼 수 있다. 콩자반을 살짝 물었다 뽀얀 모양을 한 똥은 겁많은 고라니의 것이고, 자랑이라도 하듯 돌 위에 딱하니 누어둔 똥은 날랜 족제비, 오소리의 것이다. 분필처럼 허영고 긴 똥은 너구리가 작은 동물을 뼈째 포식했다는 증거물이다.

도심의 공원에서 다람쥐, 청솔모만 만나도 환성을 지르며 야단법석을 떠는 도심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야생동물의 흔적들은 이 땅이 인간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 동안 인간들이 오고간 길을 밤이면 은둔지에서 나온 동물들이 나누어 쓰는 이곳 지리산길.

이곳에서 나는 만물의 영장이 아닌 그저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나란히 발자국을 보낸다.

12. 아미산길

아미산의 허리를 돌아가는 이 언덕배기 기슭, 푸르게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길게 누운 순백의 모래밭이 보인다. 이곳의 지세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동 땅에 바다가 있었던가 가우똥 하겠지만, 이 모래밭을 살랑살랑 어루만지며 흘러가는 푸른물은 바로 섬진강이다. 강가를 따라선 수면만큼이나 낮게 깔린 광활한 들판이 눈에 들어온다. 악양 평사리 들판이다.

아미산과 그 너머 갈미봉이 만들어내는 가파른 계곡 사이에 신통하게도 너른 평지를 만들어낸 들판은 지평선과 맞닿는 남도의 평야나 층층이 다채로운 곡선을 자랑하는 다랭이논과는 또 다른 운치를 선사한다. 흔하디 흔한 비닐하우스 한 동 없이 온전히 벼와 보리 위주의 곡식만 키워내는 이 땅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최참판댁을 만석지기로 만들어준 주인공이다.

악양 사람들은 이 평사리 들판을 '무덤이들'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게 된 연유를 누구도 명쾌히 아는 이는 없다. 별다른 제방도 없던 시절, 쏟아지는 비에 섬진강은 곧잘 들판을 덮쳤을 테고, 경사도 없이 너르게만 펼쳐진 들판에 한 번 들어온 물은 쉽게 빠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물이 디밀고 들어오는 들'이라는 의미에서 '무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이 언덕배기 기슭에는 '개치'라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 이 이름 역시도 들이치는 섬진강 물 덕분에 붙은 이름이다.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해 들어오는 물 때문에 마을 앞길로 왕래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곳 고갯길을 넘어야 했다. 당시 문을 열고 고개를 넘어 다녔다 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개치'인 것이다.

하지만 물길 땅길 아랑곳없이 넘나드는 섬진강물이 개치마을에 이런 시련만 선사한 것은 아니었다. 들녘에 채워진 물이 빠져나갈 때 근방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로 짠 통발을 들고 나와 들판 여기저기를 덮쳤는데, 그러면 물 따라 들어왔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잉어가 틀에 갇혀 적잖이 잡혔다고 한다.

운 좋은 사람은 하루에 수십 마리를 잡기도 했는데, 이런 독특한 잉어잡이는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축제가 되었다.

물을 가까이 하여 좋은 점은 이뿐 만은 아니었다. 과거 진주에서, 남도에서 출발한 배들은 이곳 개치마을 앞까지 이르렀고, 각지에서 물려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개치장은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장이었다니, 당시 이 땅이 얼마나 넘치는 활기로 들썩였을지는 보지 못했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개치마을의 아름다움은 '원포귀범'이라고 일컬어 졌다. '멀리 포구에서 돌아오는 돛단배'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개치마을의 장관은 그 옛날 많은 시인들에게 더없는 영감을 주었으리라.

*넋가의 벼들잎은 바람결에 한들한들
사월의 화개 땅엔 보리 벌써 익었구나
두류산 천만겹을 두루 다 보고 나서
한 조각 배를 타고 큰 강으로 내려가네*

줄지어 드나들던 배들의 행렬이 사라져버린 섬진강 물 위로, 옛 시 한 편을 돛단배 삼아 띄워 보낸다.

13. 문암송

대축마을의 끝자락, 민가도 감밭도 멀어져버린 이곳에 조금은 생똥맞게도 정자가 서 있다.

마을 입구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평평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아미산길로 접어드는 이 어스런 길에 정자라니 썩 좋은 위치는 아닌 듯 싶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고개를 치켜드니 정자가 이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눈에 들어온다. 10미터는 족히 넘을 듯한 높이에, 어른 둘 셋은 팔을 벌리고 덤벼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의 둘레의 큰 소나무. 사방으로 뻗은 가지를 우산처럼 늘어뜨린 채 늙은 소나무는 대축마을을, 아니, 악양 들판을 굽어보며 서 있다.

비범해 보이는 첫인상에 압도된 것일까,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나무를 향한다. 어라, 가까이서 보니 이 나무 더욱 예사롭지 않다. 땅을 아예 딛지도 않고 발아래 바위에만 뿌리를 내린 채 저 큰 덩치를 지탱하고 선 것이다. 풍채 좋은 노인이 너럭바위에 턱 하니 걸터앉은 형국이다. 눈앞에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시선은 연신 나무 꼭대기와 뿌리 사이를 오르내린다.

“그거이 문암송이여. 대단채? 나무가 월매나 힘이 좋으면 바위를 뚫었겠어.”

넋 놓고 서있는 내 등 뒤로, 지나던 마을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예로부터 시인과 화가들에게 풍류를 즐길 그늘을 내어주었기에 ‘문암송’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 바위를 쪼개고 자란 나무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보고 들었지만, 문암송을 보고 있노라니 그것이 대단한 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바위 위 한 줌의 흙 위에 싹을 틔운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려면 어쩔 수 없이 바위를 쪼개고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가 쪼개지면 나무는 보금자리를 잃는다. 온전히 바위에만 뿌리를 내린 문암송이 여느 나무들처럼 거침없이 자랐다면 바위는 산산조각 났을 것이고 나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자라났을 터이다. 다른 나무들이 한 자씩 두 자씩 쑥쑥 키를 키워갈 때에 문암송은 고작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높이를 더했을 것이다. 그것도 바위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난 뿌리로 바위를 감싸면서 말이다. 누가 알려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낸 문암송의 지혜가 놀랍다.

“저쪽 나무님 뒤로 돌덩이들 봤는가? 그거이 또 문암송이 막아준 것이여.”

오래 전 큰 비가 내려 마을 뒷산에 산사태가 났을 때 마을을 덮칠 기세로 굴러내리던 바윗덩이들을 문암송이 온몸으로 막아내었다는 얘기가. 그리고 보니 소나무 주변에 당시에 굴러왔을 법한 돌덩이들이 제법 눈에 띈다. 그 때 이후로 대축마을 사람들은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문암송에게 제를 올리게 됐다고 한다. 의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막걸리 한 말을 소나무 주변에 뿌리는데, 이제껏 자연과 인간과 함께 버텨준 문암송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표시인 셈이다.

작년 여름 들이킨 막걸리 기운에 아직 취해있는 것일까,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문암송이 잔가지를 흔들며 기분좋은 춤을 춘다. 쇠아~ 쇠아~ 문암송이 자아내는 풍악 소리를 들으며 섰노라니, 내 자신이 비록 시인이거나 화가는 아니지만 콧노래 한 소절이 절로 흥얼거려진다.

14. 대축마을

분명 마을길을 걷고 있지만, 이곳이 과수원인지 마을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집이 한 채 나오기가 싶으면 그 양옆으로 어김없이 감나무밭이 늘어서 있다. 긴 작대 없이도 쉽게 감을 딸 수 있도록 낮게 키워낸 감나무들이 정겹다. 가지마다 조롱조롱 달린 감들이 햇빛을 받아 열린 초록빛으로 반들거린다. 하동 악양 땅은 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대축마을은 대봉감을 처음 심은 곳으로 명성이 높다. 납작한 단감과 달리 둥글고 길쭉한 모습에 빼죽감이라 부르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묘목을 들여와 이 땅에 심었다고 하여 왜감이라고도 부르는 대봉감. 홍시로 먹는 대봉감은 임금님께 드리는 진상품이었던 만큼 감히 홍시 중의 홍시라 할 것이다. 어린 아이 얼굴을 가릴 만큼 탐스런 크기의 주홍빛 홍시. 먹거리 귀한 겨울철, 입안을 달콤하게 적셔주던 대봉시의 촉촉한 살점의 맛이 떠오르자, 침이 고이다 못해 온몸이 자르르 떨린다.

11월 초순이 지나 찬서리가 한두 번 내리고 나면 대축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수레를 끌고 마을길로 쏟아져 나온다. 때를 잘 맞춰 수확을 해야 짧지 않고 맛난 홍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손에 이끌려 땅 위로 내려온 감은 바람 잘 드는 시원한 그늘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야 비로소 말랑말랑 잘 익은 홍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릴 적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몇 알을 몰래 꺼내다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넣어두기도 했는데, 억지로 익혀 시큼한 맛이 나는 홍시를 그래도 좋다며 온 얼굴에 감물을 묻혀가며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대봉감이 홍시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여전히 단단한 감들을 꺾꺾 찢어보던 손주 녀석이 안쓰러우셨던 것일까. 할머니는 몇 알을 따로 챙겨 손주 녀석의 갈증을 다소나마 일찍 풀어주시곤 했다. 작은 항아리에 대봉감을 넣고 그 안에 사과를 한두 알 함께 넣어 뚜껑으로 잘 덮어두는 것이 할머니만의 비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 덕분에 감은 금새 무른 홍시가 되었다.

대봉감으로 만든 홍시는 천상의 맛을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홍시가 되고 나면 쉽게 물러지는 탓에 겨우내 두고 먹을 수는 없다. 겨울이 깊어지면 또 다시 빈 입맛만 짹짹 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하얀 접시에 감말랭이를 소복하게 얹어 손주 녀석의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쫄쫄쫄 말랑말랑한 감말랭이를 하나 둘 입에 넣고 씹으면 달큰한 단물이 입안에 가득 고이던 그 순간, 그 때만큼은 어떤 과자도 부럽지 않았다. 새로 지은 마을 집들에 올려놓은, 온실을 닮은 유리 구조물들이 간간히 눈에 띈다. 돌아오는 겨울이면 그곳에서 꽃감이며 감말랭이들이 불어드는 바람에 몸을 틀겠지. 입안 가득 달큰한 향기가 퍼진다.